洪吟

홍 음

李洪志

圓明

心懷眞善忍
修己利與民
大法不離心
它年定超人

一九九四年二月二十八日

대법 공부

근기는 선천적 조건이요
바른 깨달음은 상사의 슬기에 의해서라
眞善忍(쩐싼런) 품은 마음에 도 있으니
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하면 원만할 것이로다

1993년 2월 18일

學大法

根基爲先天之條件
正悟爲上士之慧因
存眞善忍心中有道
修法輪大法可圓滿

一九九三年二月十八日

차 례

苦其心志 ····· 2
마음고생 ····· 3
做人 ····· 4
사람 되기 ····· 5
覺者 ····· 8
각자(覺者) ····· 9
誰敢捨去常人心 ····· 10
누가 과감히 속인 마음을 버릴 수 있으랴 ····· 11
願 ····· 12
소원 ····· 13
無存 ····· 16
무존(無存) ····· 17
法輪大法 ····· 18
法輪大法(파룬따파) ····· 19
容法 ····· 20
용법(容法) ····· 21
乘正法船 ····· 22
정법의 배를 타고 ····· 23
無爲 ····· 24
무위(無爲) ····· 25
學大法 ····· 26
대법 공부 ····· 27

圓明 ····· 28
원명(圓明) ····· 29
求正法門 ····· 30
정법문을 구하다 ····· 31
得法 ····· 32
법을 얻다 ····· 33
緣 ····· 34
인연 ····· 35
了願 ····· 36
소원을 풀다 ····· 37
助法 ····· 38
법을 돕다 ····· 39
因果 ····· 40
인과(因果) ····· 41
迷中修 ····· 42
미혹 속의 수련 ····· 43
實修 ····· 44
착실한 수련 ····· 45
佛法圓容 ····· 46
불법 원용(佛法圓容) ····· 47
再度 ····· 48
재도(再度) ····· 49
眞修 ····· 50
진수(眞修) ····· 51
同化圓滿 ····· 52
동화 원만(同化圓滿) ····· 53

무위(無爲)

삼교(三敎) 수련은 무위를 중시하거니
마음 잘못 쓰면 곧 유위로다
착한 일만 한다 해도 역시 유위이거니
집착심을 제거해야 참된 무위로다

1993년 1월 17일

無爲

三教修煉講無爲
用心不當卽有爲
專行善事還是爲
執著心去眞無爲

一九九三年一月十七日

大法破迷 ····· 56
대법이 미혹을 깨뜨리다 ····· 57
跳出三界 ····· 58
삼계(三界)를 벗어나다 ····· 59
遊懸空寺 ····· 60
현공사(懸空寺)를 거닐며 ····· 61
遊恒山 ····· 62
항산(恒山)을 거닐며 ····· 63
分明 ····· 64
분명함 ····· 65
遊南華寺 ····· 66
남화사(南華寺))를 거닐며 ····· 67
自修 ····· 68
스스로 수련 ····· 69
靜觀 ····· 70
조용히 바라보다 ····· 71
洪 ····· 72
넓음 ····· 73
主掌天地 ····· 74
주장천지(主掌天地) ····· 75
人覺之分 ····· 76
사람과 각자의 구별 ····· 77
人妖之間 ····· 78
사람과 요괴 사이 ····· 79
高處不勝寒 ····· 80
높은 곳은 쓸쓸해 ····· 81

大覺 ····· 82
대각(大覺) ····· 83
打工與修佛 ····· 84
품팔이와 부처수련 ····· 85
劫後 ····· 86
겁 후(劫後) ····· 87
迷 ····· 88
미혹 ····· 89
魔變 ····· 92
괴이하게 변함 ····· 93
道中 ····· 96
도(道) 중에서 ····· 97
威德 ····· 100
위덕(威德) ····· 101
佛主 ····· 102
불주(佛主) ····· 103
法輪世界 ····· 104
法輪世界(파룬쓰제) ····· 105
緣歸聖果 ····· 108
연귀성과(緣歸聖果) ····· 109
遊響堂山寺 ····· 110
향당산사(響堂山寺)를 거닐며 ····· 111
登泰山 ····· 112
태산(泰山)에 올라 ····· 113
圓滿功成 ····· 116
원만 공성(圓滿功成) ····· 117

정법의 배를 타고

진짜인가 심오한가 수련하는가
흐리멍덩 어렴풋하나니 깨달을지니라

1993년 1월17일

乘正法船

眞乎玄乎修乎
惚兮恍兮悟兮

一九九三年一月十七日

太極 ····· 118
태극(太極) ····· 119
苦度 ····· 120
고도(苦度) ····· 121
變異 ····· 122
변이(變異) ····· 123
廣度衆生 ····· 124
중생을 널리 제도하다 ····· 125
心明 ····· 126
심명(心明) ····· 127
難中不亂 ····· 128
난중불난(難中不亂) ····· 129
末法 ····· 130
말법(末法) ····· 131
放下執著 ····· 132
집착을 내려놓자 ····· 133
有爲 ····· 134
유위(有爲) ····· 135
遊岳飛廟 ····· 136
악비(岳飛) 묘를 거닐며 ····· 137
訪故裏 ····· 140
옛 고향을 찾아 ····· 141
遊淸東陵 ····· 144
청나라 동릉(東陵)을 거닐며 ····· 145
善惡已明 ····· 146
선악이명(善惡已明) ····· 147

遊日月潭 ····· 148
일월담(日月潭)을 거닐며 ····· 149
憶長安 ····· 150
장안(長安)을 회상하며 ····· 151
安心 ····· 152
안심(安心) ····· 153
回首 ····· 154
회고 ····· 155
世界十惡 ····· 156
세계 십악(世界十惡) ····· 157
遊雁門關 ····· 160
안문관(雁門關)을 거닐며 ····· 161
同化 ····· 164
동화(同化) ····· 165
新生 ····· 166
신생(新生) ····· 167
笑 ····· 168
웃음 ····· 169

용법(容法)

불광이 널리 비추나니
예의가 원만하고 밝도다
공동으로 정진하나니
앞길이 광명하도다

1992년 12월 27일

容法

佛光普照
禮義圓明
共同精進
前程光明

一九九二年十二月二十七日

洪 吟

홍 음

李 洪 志

苦其心志

圓滿得佛果 吃苦當成樂
勞身不算苦 修心最難過
關關都得闖 處處都是魔
百苦一齊降 看其如何活
吃得世上苦 出世是佛陀

一九七六年十二月十七日

法輪大法(파룬따파)

공(功)을 수련하는 길은 마음이 지름길이라
대법은 끝없나니 고생을 배(舟)로 삼을지니라

1992년 7월 24일

法輪大法

功修有路心爲徑
大法無邊苦作舟

一九九二年七月二十四日

마음고생

원만은 불과(佛果)를 얻나니
고생을 낙으로 삼노라
몸 고생은 고생이 아니나니
마음 수련이 가장 어렵도다
고비마다 반드시 넘어야 하는데
곳곳마다 마(魔)로다
백 가지 고생 한꺼번에 내리거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겠노라
세상 고생 겪을 대로 겪나니
세간 벗어나면 부처로다

1976년 12월 17일

做人

爲名者氣恨終生
爲利者六親不識
爲情者自尋煩惱
苦相鬥造業一生

무존(無存)

살아 바라는 것 없고
죽어 애석할 것 없네
허망한 생각 다 떨쳐버리면
부처 수련 어렵지 않도다

1991년 10월 20일

無存

生無所求
死不惜留
蕩盡妄念
佛不難修

一九九一年十月二十日

사람 되기

명예를 위하는 자 평생 화내고 원망하며
이익을 위하는 자 육친마저 몰라보고
정을 위하는 자 스스로 번뇌를 부르나니
고달픈 다툼에 일생토록 업을 빚는구나

不求名悠悠自得
不重利仁義之士
不動情淸心寡欲
善修身積德一世

一九八六年七月十三日

건곤 밖은 더욱 끝없나니
크나큰 소원 위해 대도를 전하노라

1990년 1월 1일

乾坤之外更無垠
爲了洪願傳大道

一九九零年一月一日

명예를 구하지 않으니 유유자득이요
이익을 중히 여기지 않으니 인의지사요
정을 움직이지 않으니 청심과욕이라
참답게 수신(修身)하며 일생토록 덕을 쌓네

1986년 7월 13일

覺者

常人不知我
我在玄中坐
利慾中無我
百年後獨我

一九八七年 二月二日

註: 在我沒有傳法之前自已獨修時所寫

소원

망망한 천지 내 보기에는 작거늘
끝없는 창궁은 누가 만드느뇨

願

茫茫天地我看小
浩瀚蒼穹是誰造

각자(覺者)

속인은 나를 모르나니
나는 심오 속에 앉아 있도다
이익과 욕구 속에 나 없나니
백년 후에는 오로지 나로다

1987년 2월 2일

주해 : 법을 전하기 전 단독수련 할 때 쓴 詩

誰敢捨去常人心

常人只想做神仙
玄妙後面有心酸
修心斷慾去執著
迷在難中恨靑天

一九八八年八月九日

누가 과감히 속인 마음을 버릴 수 있으랴

속인은 오로지 신선이 되고자 하나
현묘한 뒷면에 서글픔 있네
마음 닦고 욕구 끊어 집착을 버려야 하건만
난 속에 미혹되어 푸른 하늘만 탓하누나

1988년 8월 9일